

무주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박차

하천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추진... 2025년까지 자연 친화형 하천 공간 조성

무주군이 설천면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9년 수생태계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해 2020년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8월부터는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하천기본계획(재수립) L=1.82km, 실시설계 L=1.0km로 총 5억1,3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다.

무주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등방천에 2025년 12월까지 생태탐방로와 수질정화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물고기 등 다양한 수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하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이재진 팀장은 "등방천은 과거 인근 리조트 시설과 스키장 개발 등으로 생물서식 환경이 심하게 훼손·교란되었던 상황으로 생태환경 복원이 절실했다"며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데 집중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등방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등방천은 심곡리에서 시작해 원당천으로 합류하는



무주군 설천면 등방천.

지방하천으로 무주읍 남대천의 제2지류, 금강의 제3지류에 속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덕유산국립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하류부에는 배방마을과 스키 슛, 식당 등 상가들이 자리해 있다.

주민들은 "관광무주의 얼굴인 구천동 지역을 관통하는 등방천은 지역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깃줄이자 청정무주의 자존심"이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오염됐던 등방천을 살리는 기회와 때 모두에게 무주구천동이 맑고 공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기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이 돼 참채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 실시

관내 사육 소 1386두 대상

무주군은 8월말까지 관내에서 사육되는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무주군에서 사육하는 소 193호 1,386두이며(전업농가 55호/817두, 영세농가 138호/569두) 백신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1차 접종은 2개월령 송아지, 2차 접종은 1차 접종 개체 1개월 후)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무진장 축협을 통해 백신 구입 후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상으로 예방접종 2개 반을 편성해 농장

주 임의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하는 백신은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예방하는 2가 백신으로 구제역 접종을 매년 일제접종(상·하반기)과 수시접종(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박현우 팀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은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으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팜메이트 활동으로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무주군, 농업현장 애로사항 청취·농업기술 공유·일손 돕기 등 진행

무주군이 팜메이트(행정+농가) 활동에 주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팜메이트 활동은 농업분야의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과 농업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발 빠르게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과, 포도(사인머스켓), 천마, 복숭아, 토마토 분야 5개 팀 27명이 지난 3월

부터 6개 읍면 농업현장을 누비며 농업기술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소득향상과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또 시기별 농작업 일손 돕기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영중 소장은 "팜메이트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규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역량

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목표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성 높은 농촌지도사업을 펼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팜메이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직원 간 멘토·멘티 이론학습과 현장실습도 품목별 팜메이트의 과원에서 추진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팜메이트 활동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3일 오전 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 복상으로 예상되는 태풍 및 호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진안군, 태풍 대비·점검 총력

기상상황 분석·대처 방안 등 논의 긴급 점검회의 가져

진안군은 23일 오전 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 복상으로 예상되는 태풍 및 호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전춘성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오마이 경로 등 기상상황 분석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비상근무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별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등에 대한 호우대비 점검 ▲우수관측·집수구 등 배수시설에 쌓인 토사와 이물질 제거 조치 ▲수방 자체

와 장비를 점검 등 태풍 사전 대비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축대 붕괴, 비닐하우스, 농·축산 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에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강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와 총체적 점검을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며 "군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활동을 자제하고 농가축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 태풍 복상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마스코트 '빠망' 활용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진안군은 군 마스코트 '빠망'을 활용해 관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왕따,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청소년 정신건강 활동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23일 진안중학교에서 1, 2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전문 강사 자격을 수료한 담당자가 빠망 탈을 쓰고, 학생들에게 생

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대한민국생명지킴이로서 청소년기 비슷한 성장과정에 있는 주위 친구들의 자살위험 신호를 파악해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지원(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430-8529)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1일까지 연장

무주군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에서 8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면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게 됐다. 군은 아직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장수군 장수군은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군내 위험·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활동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국가적 예방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민박 등 다중 이용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 총 37개소로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정밀점검 및 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등 위험 사항 발견 시 사용 중지 및 개선 조치 이용 후 사용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23일 군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다. 군은 각종 노후·고위험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관내 총 15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은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6일간 열리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중점을 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